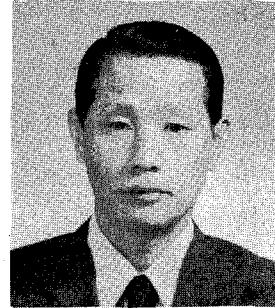


# 훗날을 위하여 양계업계의 구심점을 정립해야

이 창 구

가족위생연구소장, 이학박사/  
미네소타대학 대학원졸/  
농진청 연구조정과 역임



**1960**년대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정부의 축산진흥정책과 더불어 우리 양계업계는 어느 분야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 결과 많은 양계농장들이 그들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그렇게 하다보니 농가 부업 형태의 양계는 이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진 각국들이 한결같이 밟아온 과정이고, 또 그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우리의 양계업도 그와 같은 궤도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기업화에 따르는 집단, 또는 밀집사육 등 양산체제는 양계산물의 생산가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 유통의 대형화라는 부담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생산과잉 현상이나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한 소비의 일시적인 정체에 부딪혔을 때 많은 시련과 혼란을 우리 양계업계는 수없이 겪어 왔다. 분명히 양계업의 기업화와 대량생산 제도가 개별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 등 유리한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계인들 서로를 각박하게 그리고 메마르게 만들었으며, 또 과도한 경쟁심을 키워왔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양계업계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제한된 국내시

장에서의 소득을 서로가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뛰다보면 불가피하게 무리가 뒤따랐고, 그 결과로 다름아닌 우리 양계인 자신들이 고통을 받아 왔다.

1950년대만 해도 서로가 돕고, 협조하고, 또 서로가 격려하면서 지내온 양계인들이 60년대와 70년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공급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하였고, 때로는 양계인 서로가 부도덕하고, 불미스러워지기도 하였던 예가 많았다.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국내 제일가는 기업양계가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양계산업이 그만큼 발전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의 조절을 포함하는 경제적인 생산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양계업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염려마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양계인들은 스스로의 지난날과 그리고 현재를 겸허하게 되돌아 보고 앞으로는 양계업계 전체에 미치지 되는 실패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자칫 잘못하면 극히 부분적인 눈앞의 이익과 효율만을 생각하다 보니 양계업계 전체의 이익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일이 간혹 일어나고 있다. 그 한 예가 금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닭의 전염성 후두기관염(ILT)의 전파와 그로 인한 양계업계의 막대한 피해를 들 수 있다.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병에 걸린 닭을 유통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고 병원체(病原体)에 오염된 난좌와 닭 수송상자들이 소독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 양계농장과 시장 사이를 수없이 왕래한 까닭에 이 병은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퍼져서 불과 7~8개월 사이에 큰 피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판민 다같이 힘모아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정상적인 방역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 볼 때 우리 업계가 얼마나 무질서 하였던가를 여실히 보여준 증거이기도 하다. 생산과잉으로 인한 불황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양계업계에 다시 있어서는 아니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귀한 외화를 들여서 사료곡물을 도입하여 양계사료에 충당하는 우리의 입장이고 보면 양제인 개인의 손해는 바로 국가의 손해와 직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기술 정보교환에 의하면 아직까지 듣도 보도 못하던 새로운 닭 질병이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염성 후두기관염과 같은 외래성질병(外來性疾病)이 어느 때 우리나라에 침입해서 평화스러운 우리 업계를 괴롭히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품종개량을 목적으로 하여 많은 종축이 끊임없이 도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질병에 대한 방역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오늘날의 가축방역의 실정

**자기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아집과 권위에서 탈피해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업계의 구심점을 재정립 균형있는  
발전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종전의 관습적인 관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새롭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과거도 그러하였거니와 이제 성년이 된 우리 양계업계도 스스로 과거를 돌이켜 보고 현재를 평가 분석하므로써 낡은 생각은 과감히 떨쳐 버리고 목전의 역기능적 과다경쟁을 지양해야 하며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양계업계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진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하나같이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였듯이 양계업계도 변천하는 제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심점(求心點)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아집과 권위스러운 말만이 떠돌아 다니는 곳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며 항상 초라하고 쑥스러운 입장에만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야말로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업계의 구심점을 재정립하고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쌓아 올린 우리나라 양계업계가 앞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육계생산자의 정확한 입추정보를 위한

## 육계사료 생산 실적 통보

문의 : 본회 지도조사부 ☎ 752 - 3571 ~ 2